

[사회]

광주 초·중·고생 100명 중 7.5명 아토피 질환

16개 시·도 중 두번째로 높아...전남은 5.6%

광주지역 초·중·고교생 100명 중 7.5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26만3천836명 중 7.5%인 1만9천854명이 아토피 질환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중 제주(1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대전 6.8%(1만7천94명) ▲충북 6.5%(1만5천233명) ▲부산 6.

64%(3만3천502명) ▲충남 6.0%(1만7천813명) ▲경기 5.9%(10만9천967명) ▲울산 5.6%(1만1천48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학생 28만3천458명 중 5.6%인 1만5천858명이 아토피 질환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아토피 발병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3.2%(7천319명)를 기록한 강원도였다.

아토피 질환을 보인 광주·전남지역 학생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의 경우 여학생 아토피질환 환자가 8.5%(1만784명)로 남학생 6.58%(9천70

명)보다 높았다. 전남지역도 여학생이 6.29%(8천509명), 남학생이 4.69%(7천3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아토피 질환을 보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9.69%(1만2천446명) ▲중학생 5.56%(3천949명) ▲고등학생 5.39%(3천421명) 등이었다.

전남지역은 ▲초등학생 7.46%(1만352명) ▲중학생 3.61%(2천719명) ▲고등학생 4.02%(2천731명) 등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761만1천125

명 중 5.7%인 43만256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6.3%(22만6천728명, 남학생이 5.1%(20만3천5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7.5%(27만5천10명) ▲중학생 4.3%(8만7천487명) ▲고등학생 3.5%(6만6천730명) 등이다.

이 의원은 "최근 공해와 음식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한 아토피 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학교 내의 미세먼지 제거와 친환경 식단제 공 등 환경적 노력과 급식관리, 쾌적한 학습환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고3 수험생 50여만명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

16일 전국 1천822개 고등학교에서 3학년생 5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학력평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에서 수능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수능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평가 성적을 띠고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상황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 결과는 다음달 7일 각 학교로 보내지며 학생 개인에게는 수능의 기본 제공자료인 영역별 원점수와 표준점수, 등급과 함께 보충합성이 필요한 문항 번호 등이 제공되고 학교에는 학급별 성적 일람표와 담지 반을 등이 제공된다. /정성필기자 c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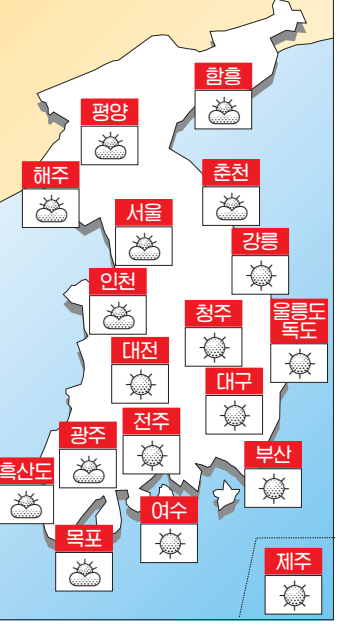
따뜻한 가을햇살 10월 16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like Seoul, Gyeonggi, Chungcheong, etc.

10월 16일 (음 9월 18일)

◇전국날씨



서울날씨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날씨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17th to 22nd of October.

암 생존율 50% 넘었다

환자 2명 중 1명 5년 이상 살아

의료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암 환자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수명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가 15일 공개한 '2003~2005년 암발생률 및 1993~2005년 암발생자 5년 생존율' 통계에서 밝혀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암 발생 건수는 13만2천941건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7만2천952명, 여자는 5만9천989명이 암에 걸렸다. 이에 따라 평균 수명에

이르기까지 남자(75세 기준)는 31.9%, 여자(82세 기준)는 25.5%가 암에 걸리는 것으로 환산됐다.

암의 종류별로는 위암이 7만2천872건으로 여전히 부동의 선두를 유지했고 이어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의 순을 보였다. 또한 생활습관의 변화로 대장암과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서구형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국가 암관리 사업 후반 기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암 생존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내 몸에 맞는 운동량 체크하세요

광주 남구보건소는 15일 오후 남구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운동요법을 지도해주는 '고고성! 고고쌩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심장박동계를 부착한 후 운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량을 체크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남구보건소는 15일 오후 남구 봉선동 유안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운동요법을 지도해주는 '고고성! 고고쌩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은 심장박동계를 부착한 후 운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적당한 운동량을 체크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 '주의보'

〈쓰쓰가무시·렘토스피라·유행성출혈열〉

광주·전남을 16명 감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쓰쓰가무시증, 렘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 감염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질환들은 주로 도시가 아닌 산이나 들에서 감염되는 3군 법정전염병으로, 이 중 감염성이 높은 쓰쓰가무시증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지난해 838명이 발병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

해 현재 가을철 3대 발열성 질환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이중 9명이 오진 감염된 환자는 6명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환자와 야유회 등 야외 활동 늘고 추수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발열성 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발열성 질환자 941명 가운데 10월에 감염된 사람은 162명, 11월 감염자는 657명으로 10~11월 감염자가 전체 70%를 차지했다. /안현주기자 ahj@

“교비 등 50억 횡령 혐의 성화대 학장 파면하라”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은 강진 성화대학 학장의 교비 횡령사건과 관련, 15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장 이모씨를 파면하고 대학에 임시대행자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씨는 국고보조금과 교비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도 학장으로 취임해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짓밟고 있으며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대 의생명과학센터 건립 차질 예산 확보 못해 공사 중단 위기

장기적으로 전남대 의대가 이전하게 될 전남대 의생명과학센터(이하 센터)가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전남대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센터 건립이 교과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올해 설계와 공사업체 선정 등을 마치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내년 예산 확보에 있어 관계 부처와 사실상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전남대가 계획한 총 예산은 467억원. 이 중 자부담 26억원과 지금까지 집행된 83억원을 제외한 358억원은 언제 지원될 지 모르는 상태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10년에서 2012년으로 늘려 잡았으나 이마저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정성필기자 camus@

전남대 앞 도로명 ‘남강로’ 변경 논란

전남대가 최근 광주시 북구청과 합의해 학교 인근 도로명을 초대 총장의 호를 따 ‘남강로(南崗路)’로 변경키로 한 것(본보 8일자 9면)과 관련, 전남대 일각에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전남대 사회대 사학과 김동수 교수는 지난 14일 내부 게시판에 ‘학교 주변 도로명을 남강로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

이라고 주장했다. 경영대 송인성 교수도 “대학 구성원이 인식하고 광주시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광주시민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전남대는 지역사회에서 또 한 번 신뢰를 잃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전남대 김정환 기획처장은 댓글을 통해 “도로명 변경 논란은 북구청의 도로명주소 일

사립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학교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마침내 1960년 4·19 혁명 이후 학생들에 의해 결국 퇴장당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기념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교수는 도로명 개정이 누구의 발상인지, 어떤 논의를 거쳐 진행될 사업인데 계획에 맞게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Includes tables for real estate listings and company information.

에너지 비상 난방비 걱정! "히팅레일"로 해결!! 기름값의 1/4, 가장 경제적입니다. Includes details about the heating syste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T Touch Co., Ltd.